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

- 2026. 9. 17.(목) 14:00, 정부서울청사 -

2026년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으로 부임하여 처음 개최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입니다. 먼저 마약류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 기관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마약대응과 관련하여 수사방식의 강화, 치료·재활 분야의 인프라 확대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성과도 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마약사범을 6,641명 검거하고 국정단계에서 총 3,975kg의 마약류 밀수를 적발하여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4월부터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국내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설치하여 8월까지 11건을 적발하고, 마약밀수사범을 모두 검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상황은 엄중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다량의 마약이 밀반입되어 대학가 자취방까지 퍼져 마약범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마약청정 대한민국'이 되는 날까지 수사·단속 등 불법마약 공급억제 정책과 치료·재활 등 수요 억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논의 해야 될 과제는 3가지입니다. 첫째,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춘 마약 범죄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10월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굳건히 하고 합동수사도 빈틈없이 진행하여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은 상설 전문화된 합동 수사체계를 구축하여, 수사기관별 전문역량을 하나의 수사과정으로 연결하고, 공

소청은 수사기관과 공판상황에 관한 상시 협의·공유체계를 구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공판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찰청, 해경,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각 수사기관은 마약대응 전문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또한 마약류 대응의 중요한 꼭지입니다. 마약류 재범율이 '25년 처음으로 30%미만으로 내려 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마약류 사범의 재활을 위해 전담교정시설을 6개에서 13개로 늘리고 중독재활수용동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였으며, 사범 단계별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는 '마약류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모든 중독회복자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직업재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관리법 및 마약거래방지법 개정 등 '2026년 마약류관리 시행계획'에 따른 입법과제도 국회 등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분명히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약청정 대학민국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각 소관 부처에서는 오늘 논의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